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 국가예산 확보 막판 스퍼트

전북자치도, 기재부 심의 대응 위해... 김 지사 주재 사업별 대응전략 최종점검 회의 김 지사, 전략회의 마친 뒤 기재부 2차관과 면담... 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 반영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 마지막 1주일 대응을 위해 김관영 지사 주재로 사업별 대응전략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주 8월 5일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점검과 추가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박한 분위기 속에

서 진행했다. 회의는 각 실국별로 현재까지의 예산확보 상황과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실국장들의 지난주 중앙부처 등 활동결과와 사업별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했고, 쟁점사항에 대한 기재

부의 협상안 제시 등에 대비해 대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각 실국장들은 그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면서 직면했던 문제점들과 다양한 대응전략을 제시했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앙부처 및 중앙 정치권 네트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국장들은 남은 기간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요구액이 정 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략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기재부 2차관 면담을 실시하고 도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주 중에는 여야 주요인사, 중앙부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마치며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시군-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회의 중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고 말했고, 실국장들은 더욱 분발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김윤상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갖고 있다.

## '기억에서 희망으로'

전북자치도, 18일까지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 진행  
도내 여성작가 5인 작품·정의연 기록물 전시  
위안부 문제 인식 높이고 피해자 인권 회복 노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기념해, 12일부터 18일까지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열어 개최한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기림의 날 행사는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며, '정의·여성·평화'를 주제로 전북지역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상영도 예정돼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함께 깊이 있는 추모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추모식은 12일 열렸으며, 광복회 전북지회 이강안 지부장, 전북겨레하나 김은경 이사장,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서난이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도민들이 참석해 묵념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이 추모식은 1991년 고 김갑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

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다.

13일과 14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리기 파우치 만들기 및 비누 모스큐브 제작 등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김정 과장은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8월 첫째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861명

질병청 "이달까지 증가세"...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 확대  
실내 환기·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지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돼 8월 첫째주에는 861명의 환자가 신고됐다.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

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질병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개반 5개단 11개팀으로

확대한다. 반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게 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을 비롯해 국의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질병청장은 "올 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65%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

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지난 2022~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이 가운데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지 청장은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행사 취소

개관 37년만에 처음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취소됐다.

12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가를 희망한 100가족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기념관 광복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해 왔다.

하지만 역사관 논란으로 잡음을 빚는 김형석 선임 관장이 지난 8일 취임

한 뒤 행사가 취소됐다.

같은날 광복회는 김형석 선임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독립기념관 측은 "관장이 정부가 서 울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뉴시스

JEONJU INT'L SORI FESTIVAL

23rd

전주세계소리축제

2024. 8. 14. Wed - 2024. 8. 18. Sun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SORI 전주세계소리축제 협찬 전북은행 전북농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